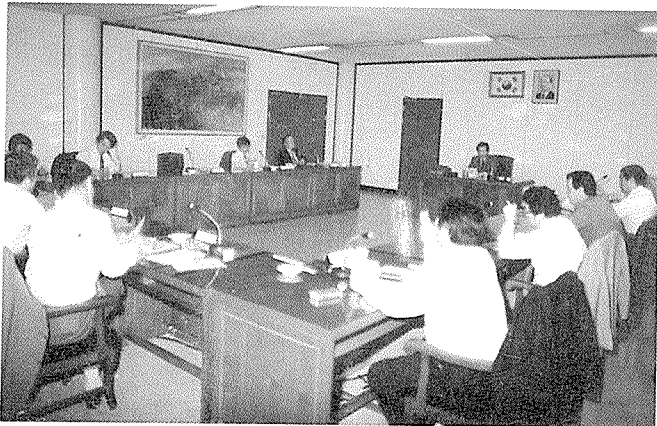


제5회 理事會 開催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會長 主宰로 제 5회 理事會가 開催되었다. 任仁嫻 事務處長의 주요업무 보고에 이은 附議事項에서는 윤리규약 제 5 조 및 제 9 조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최종협의결과에 따른 윤리규약개정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건축사연금 시행세칙(안) 제정, 경기지부의 분소 관할 변경, 전통건축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전시장 임대, 직원표창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追加案件으로 상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은 會長이 위원장이 되고 副會長, 宋其德, 李英一, 李文雨 理事와 鄭孝煥 監事를 위원으로 하고

회원 1인에 대해서는 會長이 결정기로 하였다. 其他事項에서 감리비에 대한 연금회비 납부여부에 관한 의안은 건축사법 제 2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감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연금회비를 납입토록 하고 시행 시기는 '8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실적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기로 하였다. 불허가 처분된 도서신고분에 대한 연금회비 반환여부에 관한 의안은 행정관청의 불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87년 7월 1일부터 연금회비를 환불토록 결정하였다.

建築3團體 朝餐會 開催



건축 3 단체 조찬회가 지난 5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 단체 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ACA-3 서울대회 준비기구 구성과 연사 및

토론자 선정, 한국건축학생협의회 구성 및 건축 잼보리 준비,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전시회와 건축가 협회의 건축대전 실시시기의 조정, 한·불건축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협조 등 현안문제 등이 폭넓게 協議되었다.

動力資源部主催 特定열사용기자재 설치 및 시공등의 사후관리 방안협의회 참가

6월 12일 동력자원부 대회의실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열관계 설비에 대한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특별법인으로 하여금 상근 유급직원이 입회 이내에 설치, 시공현장에 출장하여 기술적인 것을 판정토록 해서 준공검사를 하자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본협회를 대표한 任仁嫻 事務處長은 의견을 통해 검사요원만을 별도로 배정한다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수가 없다는 점과 민원의 지탄소지가 많고, 현행 건축법상 준공검사시 분야별로 검사대상자를 지정하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제도의 개선방향에서 우선 초기부터 성실시공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시공업자의 기술자 확보등 사후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야 하며, 현 현재 정부에서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 이후 감독관의 문제를 간소화 하려는 방안을 연구중인데 소형건물 건물까지 조사, 검사하는 부서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면 민원의 지원은 물론 부조리의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단일검사로 분야별 성실 책임시공이 우선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건축사 협회측 의견의 일치로 좀 더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추대회원」초청 경로소연회 마련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부에 소속한 추대회원을 초청하여 회관 내 식당에서 “추대회원을 위한 경로소연회”를 베풀었다. 56명의 추대회원이 참석한 이날 소연회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경로사랑 고취를 위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87회원친목 테니스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5월 21일 테니스 동호인 3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을 위한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다. 시내 동작 테니스코트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 단체전에서는 북부분소팀이 우승 하였으며, 개인전에서는 朴商浩 회원, 부부대항전에서는 林陽燮 회원 부부조가 각각 우승을 차지 하였다.



(서울지부) 추대회원을 위한 경로소연회



(서울지부) 회원친목 테니스 대회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大阪府建築士会와의 交流
부산직할시지부는 지부장을 비롯
임원 및 회원, 시 건축과장 등
대표단을 구성, 지난 5월22일
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
일본 대관부건축사회의 초청으로
동 대관부 총회에 참관하고
들어왔다.

1986년 11월11일 부산지부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는 일본 대관부
건축사회의 초청으로 총회를
참관하고, 기술교류와 정보교환,
간담회 참석, 대표적인 건축물

시찰 등 건축계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한 총회에서 鄭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建築의 形態는 模倣하기
쉬워도 建築을 對하는 精神
姿勢는 單純하게 模倣할 수
없는 것이며 友情어린 姿勢로
對話의 채널을 열어 相互交流를
斷續할때 兩地域의 建築은
本來의 바탕위에 燦然히 빛나는
새로운 建築文化를 誕生시켜
人類共同體에 貢獻할 수 있는
리더의 役割을 다할 것으로
確信한다」고 축사를 했다.

大邱直轄市支部

지부장 黃鏞周

支部 3 団体 체육대회 실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한국건축가협회 대구·경북지부,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5월16일 10시부터
17시까지 시민운동장(배구장)에서
체육행사를 갖고 친목과 화합을
다짐하였다. 3단체 친선도모를
위해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배구,

족구, 줄다리기, 400m 계주(A, B)
등 4 종목의 경기종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종합우승(1위)은
건축학회가 차지했다.



(대구지부) 건축 3 단체 체육대회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高昌永

“反共青年報” 보내기운동 참여
인천직할시지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군 제7573부대장병들을
위문하여 대한반공청년회 반공
신보사에서 발간하는 회보 3백부를
기탁하고 반공에 대한 의식을
다시한번 확고히 했다.
아울러 동회보에 6.25참전시의
高지부장이 겪은 전쟁의 상황을
인터뷰하여 6.25를 겪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 많은 흥보가 되었다.
6.25기획 “기성세대가 바라다”의
인터뷰에서 高지부장은 6.25의

참상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병사들이 기필코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일념속에
날아오는 총탄에 몸을 던지며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말없이
사라져간 그 위대한 전사들이
있었기에 조국은 살아남아 우리의
후세들은 자랑스럽게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국민 모두가
국가반공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곧 경제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국방의 원동력이 됨은
당연하다고 말하였다.

(인천지부) 회원과 직원이 함께한 체육대회



체육대회 개최

인천직할시지부는 지난 5월 9일 지부에 소속한 전회원 및 회원 사무소직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시 남구 만수동에 소재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한 이날 체육대회는 각구별 거주회원 및 직원간에 축구, 배구, 피구, 줄다리기 등을 실시하여, 우승팀 및 2, 3등에게 高昌永 지부장의 시상이 있었다. 또한 체육대회를 마친후 주변의 오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자연환경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회원친목단합을 위한 「등산」 실시

인천직할시지부는 지난 4월 25일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봉산에서 등산을 실시하였다. 지부 소속회원중 최고령회원을 비롯하여 참가한 전회원이 힘든 산행을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였으며 자연보호를 위한 주변의 쓰레기, 오물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농촌일손돕기 실시

경기도지부는 지난 6월 5일 모내기 철을 맞아 바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모내기 지원 봉사활동을 벌였다.

지부 임직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소재 450여 평의 논에 모를 심어 농민들을 맞아 바쁜 일손을 덜어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京畿道支部

지부장 趙相鎬

巡廻懇談會 開催

경기도지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상공회의소 및 각 분소회의실에서 차 관청과의 순회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건축행정 의 원활을 기하고 건축 분야 관계 공무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분소별 회원 및 도

건설국장, 주택과장, 각 시군 계, 과장 등 참석연인원 회원 230명, 공무원 64명과의 순회간담회에서는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토의 및 문제점이 건의되고 회원들과 대 관청과의 상호친목과 업무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경기지부) 건축사 순회간담회



(경기지부) 농촌일손돕기



忠清北道支部

지부장 延寬欽



(충북지부) 건축사보 직무교육

建築士補 職務教育 実施

충청북도지부는 건축사보 및 건축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1일과 22일 남부, 북부로 나누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청회의실과 충주시청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한 이날 교육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이고 건축행정의 건설화를 위한 대책 및 관계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숙지하여 보다 향상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全羅北道支部

지부장 嚴柱浩

懇談會 開催

전라북도지부 지난 5월 22일 11시 전주관광호텔 풍남홀에서

도 주택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전북지부) 건축업무간담회



지부장의 지부회원과 도 건설국장, 주택과장, 주택행정계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관계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최근의 건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논의되었다.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亨哲

會員懇談會 및 弘報(教育) 實施
제주도지부는 지난 5월 2일 지부 회의실에서 회원 간담회와, 4.13특별담화와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회원 및 직원 3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홍보 교육에서는 지부장인사에 이어 제주도 개발담당관의 정신교양, 건설국장의 정신교양과 4.13특별

담화 내용에 대한 홍보영화 상영이 있었다. 정신교양에 있어 개발담당관은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품성을 고려하여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이어 건설국장은 필요이상의 설계변경으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사 자신도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어 열린 회원 간담회에서는 “건축사업부 보수기준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린이날 아동 위문
제주도지부는 지난 5월 4일

제65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도(부녀아동과)를 방문하고 마련한 1십만원 상당의 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서귀포 제남보육원을 방문, 5만원 상당의 음료를 전달, 수용된 아동들을 기쁘게 했다.

〈제주지부〉 회원간담회



지하도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규칙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가. 지하도는 지상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심, 부도심과 철도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이나 지상횡단로에 시간당 6,000인 이상의 보행량이 있어 보행교통처리를 위하여 지하도설치가 불가피한 지역 또는 운동장, 공연장 및 시장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행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도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나. 지하도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구설치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의 지하에는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다. 지하도상가에서는 지하통행로로서의 주기능확보와 지하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일용품 소매상점, 다과점, 다방, 이·미용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하에 두어도 지장이 없는 시설
○ 전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날불을 사용하지 않는 대중 음식점
라. 지하도의 지하공공 보도폭은 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 없는 경우에는 5미터이상, 천정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거리 50미터 이내에 지하도 출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마. 지하도 상가점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지하도 상가면적은 지하공공보도의 면적미만일 것.
○ 주차장법 제 19조의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법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 지하도상가에는 개별 난방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바.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하도에는 공중변소, 방재센터, 예비전원시설, 공기조화시설, 방연시설, 배수시설, 방화구획시설, 냉난방시설, 쓰레기집하장 및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함.
사. 지하도 출입구 폭은 지하공공보도 폭원이상이어야 하고 출입구가

지상보도에 설치될 경우에 폭 3미터 이상의 지상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함.
아. 지하도 인접의 지하통과의 연결로는 자연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단홀을 설치하고 지하보도와 방화구획되도록 함.
자. 지상의 교통소통과 경관에 지장을 주는 지상공작물을 도로구역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차. 지하도의 내장용재료등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도에는 지상과 출입구와의 연결, 지하도구조 및 상가배치 및 비상의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여야 함.
카. 지하도의 구조 및 시설은 신체 부자유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야 함.

2. 의견제출 : 이 지하도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7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할 것)를 건설부장관(참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